

# 북한 학자들에 의한 북한 지형 연구 현황

-장기 지형 발달과 하천지형, 빙하지형, 산맥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tudy of landforms in North Korea

김종연 · 김주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환경연구부 제4기지질환경연구팀,

### 요약

북한에서 발행된 지형학관련 논문과 단행본들에 대한 문헌 검토를 통하여 북한의 지형 연구 성과를 간략히 소개 하고 그 문제점과 남북간의 공동 연구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북한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개마고원과 북동부 산간 지역은 과거의 지각 운동으로 인하여 상당히 융기 되었으며 현재도 융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융기로 인한 침식 기준면의 변동과 기후 요인으로 인한 강수량의 차이로 지역적으로 차별화 된 침식물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각 운동과 함께 제 4기 기후 변동으로 인하여 서해안에서는 활발한 해수면 변동이 보고 되고 있다. 북한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기후 최적기 당시에 서해안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2m이상 높았으며 그로 인해 서해안의 상당 부분에 해성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남한에 비하여 평균 기온이 낮은 북한의 산간 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곡빙하에 의한 빙하 지형이 보고 되고 있으며 백두산의 경우 영구 동토층의 존재가 확인 되었다. 그러나 북한 학계 일각에서 주장 하고 있는 언진산 금강산의 빙하 지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일반 지형 연구에 있어서도 이후 남북 간의 공동 연구와 과학적 연구 기법의 도입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